

# “산·관·학·연 협업 네트워크 통해 글로벌 시대 선도할 것”

이주희 동신대학교 총장 취임 1주년

## 소규모 융합전공 전면 도입·해외 연수 확대 등 역량 키우기 주력

이주희 동신대학교 총장이 지난 15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이 총장은 “지난 1년 동안 취임 당시 공약했던 학생이 행복한 대학, 지역과 상생하는 공유대학, 구성원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대학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돌아봤다. 재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은 동결하고 장학금 혜택과 학생 교육 투자는 늘린 게 대표적이다. 동신대의 학생 1인당 장학금은 2020년 380만원, 2021년 401만원, 2022년 406만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같은 기간 학생 1인당 교육비도 1194만 원에서 1283만원, 1338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학의 투자는 취업에 강한 대학의 명성을 굳히

고 있다. 동신대의 2023년 교육부 공시 기준 취업률은 68.4%로, 광주·전남지역 일반대학(졸업생 1000명 이상) 중 취업률 1위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취업률 1위, 2009년부터 최근 13년 중 11년 동안 취업률 1위를 차지했다. ‘학생들이 진짜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목표도 실천에 옮겼다. 소규모 융합전공을 전면 도입하고 학생 중심, 실무 중심 교육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과 미국 광, 뉴질랜드, 베트남, 라오스, 일본에서 다양한 해외 연수와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있다. 지역과 상생하는 공유대학을 만들기 위해 대학과 나누시, 의회, 공공기관, 기업, 시민들이 함께 고민

하는 ‘혁신 플랫폼’을 마련한 것도 주목받고 있다. 전남과 나주의 미래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조찬포럼 ‘NEXT 전남-나주상상포럼’, 동신대 혁신융합 캠퍼스에서 선보인 에너지밸리 오픈이노베이션 등이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사업, 한국대학평가원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보건복지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선정, 라이프2.0 사업 참여 대학 선정 등 다양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유치하며 대학과 지역,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특히 정부가 2025년부터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사업을 전면 시행하고, 2027년까지 지역이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글로벌 대학 30개 육성을 추진하며 지자체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행정조직 개편을 선제적으로 단행했다.

평생교육학부, 국제학부, 교양교육원, 평생교육원, 융복합교육센터를 관장하는 글로벌융합대학을 신설, 글로벌융합대학 평생교육학부에 에너지리사이클링학과, 헬스케어복지학과, K-남도문화학과, 한국어교원학과를 두고 올해 첫 신입생 모집에 들어간다. 취임 2년차를 맞은 이 총장은 글로벌 시대를 대비해 대학 혁신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지역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글로벌 대학 혁신을 선언했으며 클라우드 기반 ‘고객 관계 관리’(CRM) 분야 세계 1위 업체인 미국 세일즈포스 등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대학이 먼저 다가가 지역 기업의 연구 개발과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산·관·학·연 협업과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혁신을 가져오겠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방안을 도출해 세계적인 강소기업을 육성하며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 항공서비스학과, 예비승무원대회 호남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학과장 진경미)는 최근 학교 4호관 항공서비스학과에서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과 재수생 등 항공서비스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는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체험 프로그램과 예비승무원 대회를 진행했다. <호남대 제공>

##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여수서 개최

2024년 5월 여수 세계박람회장 전남교육청이 지역 중심 미래교육 모델 창출을 위해 교육부와 함께 전국 최초로 개최하는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가 내년 5월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다. 전남도교육청은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개최지 공모 결과 여수시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 가운데 지자체장 의지와 지원 규모, 항공 및 KTX 엑스포역과 가까워 전국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여수시는 대규모 컨퍼런스 및 국제행사

유치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조성했다. 수년간 축적된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비롯해 교통, 숙박, 행사장, 공원 등 제반 여건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위를 보였다. 여수시는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사장 임차료 100%, 관람(셔틀버스), 행사운영(교통, 주차, 숙박, 의료, 안전) 우수한 자원봉사 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도 글로벌 박람회 추진을 위한 별도의 사무국을 꾸려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성공적인 분행사를 지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선정...글로벌 인재 양성 박차

### 시교육청, 학생·교원 대상 국제교류사업 시너지 효과 기대

광주시교육청이 12일 광주 광산구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교육 국제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 30일 광주시 및 광산구와 협력해 교육부에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에 관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교육부의 계획서 심사, 대면 심사, 교육국제화특구 심의 과정 등을 마치고 이번엔 최종 선정이 됐다. 3기 교육국제화특구(2023~2027)로 지정됐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국가의 국제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제화 교육 여건을 갖춘 지역을 의미한다. 현재 대구 북구, 경기 안산·시흥 등 6곳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번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유형은 ▲세

계 시민 양성형 ▲글로벌 교원 육성형 ▲해외 인재 유치형으로,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년간 학생, 교원 대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주요 국제교류 사업과 일치하고 있어 국제화 관련 사업이 앞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는 5년간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제29조(교과용 도서)를 적용받지 않는 등 학교 지정·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외 학교와의 공동 수업, 다문화 이해, 세계시민 교육, 외국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 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교육청 특별교부금 배분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창의성을 갖춘 기금 따뜻한 세계민주시민의식을 지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생 국제교류 활동, 교원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 및 송정 다목적 센터 신설·운영을 통한 다문화교육 활성화 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광주시, 광산구와도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광주시교육청은 후속 작업으로 광주시, 광산구 등과 협업해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세부 실행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참여 컨설팅을 거쳐 8월 중 교육부에 제출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제3기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선정은 광주교육의 패기이자 광주교육이 도약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광산구, 광주시와 협력하여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의 비전인 세계민주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교육청, ‘수학 통계 활용 포스터 공모전’

초4~고등 대상, 10월5~13일 접수 전남교육청이 학생들의 수학 데이터 리터러시 소양 강화를 위해 ‘2023 수학 통계 활용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포스터 공모전은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찾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는 통계 활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로, 2~4명씩 팀별로 공모하면 된다. 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교육과정 내 수학 통계 단

원을 학습한 뒤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5~13일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심사는 1차·2차로 나뉘어 진행되고, 2차 심사는 참가자들의 통계 포스터 연구 과정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 심사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포스터는 오는 11월 4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되는 ‘2023 즐겁게 탐구하는 전남수학교육한마당 수학 이벤트’에 전시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앞서 통계 단원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통그라미’ 공학도구 활용, 포스터 제작 과정에 대한 실시간 사전 원격 연수를 운영했다. 또 지난 5월에는 학생들의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 수학 Talk\_Talk(수학으로 말해요!) 동영상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다. 박준 전남도교육청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실생활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통계를 활용해 올바른 분석과 결과를 도출해 내는 값진 경험을 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수학적 안목을 넓히는 다양한 기획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1509001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마항로 903-6(오목리9)